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17학년도 수능

12. <보기>의 (가), (나)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— <보 기> —

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, 탈락, 첨가, 축약으로 구분된다. 이 중에는 음절의 중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.

(가) 음절의 중성에 마찰음,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,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. 이는 중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.

(나) 또한 음절의 중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, 한 자음이 탈락한다. 이는 중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.

- ① ‘꽃힌 [꼬친]’에는 (가)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② ‘뭉이 [목씨]’에는 (나)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③ ‘비웃 [비웁]’에는 (나)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④ ‘얹고 [안코]’에는 (가), (나)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⑤ ‘옹고 [읍꼬]’에는 (가), (나)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
2014학년도 9월 B형

12.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. (가)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질문: ‘앞앞이’는 [아바피]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? 같은 받침 ‘ㅍ’인데 [프]과 [비]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.

▶ **답변:** ‘앞앞’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‘ㅍ’을 ㉠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. 반면, ‘앞’과 ‘앞’이 결합한 ‘앞앞’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‘ㅏ, ㅑ, ㅓ, ㅕ, ㅗ, ㅛ’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㉡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. 그래서 ‘앞앞이’는 [아바피]로 발음됩니다. ㉠과 ㉡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(가)

- ① ‘무릎이야’는 ㉠에 해당하고 ‘무릎 아래’는 ㉡에 해당합니다.
- ② ‘서넛이나’는 ㉠에 해당하고 ‘서넛에서’는 ㉡에 해당합니다.
- ③ ‘걸으로’와 ‘걸아가미’는 모두 ㉠에 해당합니다.
- ④ ‘배꽃이’와 ‘배꽃 위’는 모두 ㉡에 해당합니다.
- ⑤ ‘빛에’와 ‘빛이며’는 모두 ㉡에 해당합니다.